

(1) 2006 年 6 月 9 日

「531 地方選挙公約 FINE 評価決算および当選者公約履行点検方案の討論会」

- ・日時：2006 年 6 月 9 日（金）午後 5:00～9:00
- ・会場：国会図書館会議室（図書館 305 号）
- ・主催：韓国議会発展研究会

- ・司会：オヨンチョン教授（ソウル大）
- ・発表

①オセフンソウル市長当選者「公約履行、このようにやる」

②朴チャンウック教授（ソウル大）・李ヒョンチュル立法官（国会図書館）

「531 地方選挙マニフェスト評価と課題」

③曾根 泰教授（慶応大）「韓国地方選挙マニフェスト運動の総評および当選者に対する公約履行評価方案」

- ・討論

（2006 年 6 月 10 日 29 前面掲載「政策対決革命～ネガティブ選挙が減った」）

＊曾根教授の主な発言（発表文と新聞から）

- ・「（日本より遅く始まった韓国のマニフェスト運動は日本に比べ、スピードまたは内容面からもっと充実した。初めての試みにも関わらず、大多数の候補者がマニフェスト公約を作成し、公約の内容とレベルは日本より進んでいる。日本の場合、当時マニフェスト分析可能なレベルで公約を作成し、提出した候補者が多くなかった」
- ・「マニフェストは、選挙、執行体制、政策実施、実績評価の 4 段階のサイクルで行われる」
- ・「マニフェストは政治的メッセージである」
- ・「公約をいかに市民に伝えることが重要」
- ・「韓国の 2007 年大統領選挙はアジアで初めての本格的なマニフェスト選挙になると思う」

(2) 2006 年 11 月

マニフェスト日韓交流フォーラム

選挙の際に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をどう評価するか

＊テーマ：選挙時における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事前評価のあり方

- ・日時：2006 年 11 月 9 日（木）午後 6 時 30 分～9 時
- ・会場：横浜産業貿易センター9 階シンポジア
- ・主催：神奈川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推進ネットワーク
- ・共催：特定非営利活動法人自治創造コンソーシアム（CAC）
- ・後援：社団法人日本青年会議所神奈川ブロック協議会
- ・協力：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推進ネットワーク
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推進地方議員連盟
埼玉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推進ネットワーク

＊プログラム

18:15 開場

18:30～18:40 開会あいさつ

田村 明（かながわ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

18:40～19:00 基調報告を兼ねた来賓あいさつ「日韓マニフェスト交流への期待」

松沢成文氏（神奈川知事）

19:00～19:40 基調報告「韓国におけるマニフェスト運動の実践」

金 永来氏（5 3 1 マニフェスト選挙推進本部代表、韓国亜州大学政治外交
学科教授、韓国政治学会元会長）

19:40～19:55 実践報告①「マニフェストの出来栄への評価「形式評価」」

廣瀬克哉氏（埼玉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推進ネットワーク代表、法政大学教
授）

19:55～20:10 実践報告②「選挙前のマニフェストの評価「内容評価」」

河 東賢氏（松沢マニフェスト進捗評価委員会特別委員、慶應大学大学院生、
韓国留学生）

20:10～20:50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選挙時における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評価のあり
方」

パネルリスト 金 永来氏

曾根 泰教（慶応大学教授）

コーディネーター 廣瀬克哉氏

20:55

閉会

(神奈川新聞 11 月 10 日新聞報道)

＊金 永来

韓国におけるマニフェスト運動が導入された政治的背景と展開過程を説明した。そして韓国マニフェスト運動の特徴に関して、①公約評価活動②よい政策バンク構築と提供運動③落選運動のようなネガティブ市民運動から、政策中心のポジティブ運動へ④マスコミの支援⑤新しいガバナンスの形で市民団体、選管、マスコミが共同に展開した、と評価した。

＊河 東賢

今回韓国マニフェスト運動の大きな特徴になった、公約の事前評価に関して発表した。評価活動の経緯、評価体制、評価対象・基準・方式を、具体的に説明した。評価指標は、日本の影響を受け、具体性、測定可能性、達成可能性、適切性、工程の要素に、持続可能性、自治力量強化、地域性の評価基準が加わったので特徴である。

8月29日

내년 대선은 정책선거 분기점” … ‘매니페스토 토론회’ "[동아일보]



내년 치러질 17 대 대통령 선거에서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은 공약들이 비전을 형성할 수 있게 종합적인 측면을 보면서 ‘깜짝 공약’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의견이 제시됐다.

28 일 일본 게이오대에서 게이오대 매니페스토연구회와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한일 매니페스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17 대 대선이 정책 선거가 정착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윤승모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소네 야스노리(曾根泰教) 게이오대 매니페스토연구회장, 기타가와 마사야스(北川正恭) 와세다대 매니페스토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임 교수는 “한국 정치의 큰 특징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 불균형과 대통령의 자의적 국정 운영”이라며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권력에 견제를 가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정책 쟁점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는 대선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공약으로도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며 “대선 매니페스토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성격을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지엽적인 사안에 머물게 하기보다는 후보들이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

임 교수는 “대통령은 최고정책결정자이기도 하지만 국민과 국가 전체의 대표라는 상징성도 있다”며 “여러 정책공약 간의 조율에 신경을 쓰고 이것들이 합쳐져 일관된 비전을 형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과거에도 대선 후보 진영이 발표한 각 분야 정책 공약들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나름대로 내부 검증을 거친 것이었다”며 “문제는 이처럼 준비된 공약이 아닌 선심성 ‘깜짝 공약’ ” 이라고 지적했다.

윤 차장은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고 당선 뒤에는 실질적인 견제가 불가능하다”며 “당선 뒤 이행 평가보다는 각 대선 후보들이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하는 ‘깜짝 공약’ 을 어떻게 제대로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기타가와 연구소장은 “일본도 2003 년 지방선거 당시 매니페스토 선거를 치른 경험이 정권 차원의 매니페스토로 발전하고 있다”며 다음 달 15 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도 5·31 지방선거에서의 경험이 17 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